

## IMF 정례회의 (11 월 2 일-10 일) 보도자료

이번 회의의 목표는 한국정부와의 정책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2007 연례회의의 토대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지난 주 정부측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긴밀하고 유익한 협조를 미래에도 계속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올해 완만한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는 완만해 졌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소비가 가계소득과 부채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뜻밖의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건설분야의 활동은 바닥을 친 징후가 보여지는 반면에, 산업부문 생산량과 투자는 최근의 자료가 보여주듯이 약간의 강화까지 보여주며 견고합니다. 한국은 뛰어난 수출 실적을 지속해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요국 경제의 상승세 둔화와 맞물려 상승폭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2006년에는 5%의 성장을 2007년에는 4.3% 성장을 할거라고 전망합니다. 한편, 경상수지는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현재 2%를 넘는 선에서 약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고 전체적인 물가 압력은 2007년에도 적당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에서 여전히 억제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주목할만한 위험요소들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미국에서의 경기후퇴가 기대한 것 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부터). 그것은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북한 핵실험에 의한 경제적 영향은 아직까지 별 징후를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의 정치지정학적 상황 역시 기업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유가가 소비 둔화의 폭을 완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완충장치로서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2007년에는 유가가 현재 수준보다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본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정책당국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되는 경우에는 보다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들 중에 중요한 것은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된 대규모의 재정지출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